



# 科學은 人間을 높은 곳에 올려 놓지만 罪人을 神앞에 무릅꿨게 하지는 못한다

惠明敎會 牧師 吳 永 根

역사상 人間이 自己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科學적이고 기술적인 수단에 이렇게 많이 의존한 시대는 없었으리라.

적은 것을 크게 활용하고 약한것을 강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삶속에서 살게 되니 말이다.

제자가 선생에게 Computer 가 무엇을 하는 기계냐고 물었다. 先生님 대답은 Computer 가 무엇을 하는 기계냐고 묻는 것보다 Computer 가 못할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것이 오히려 쉬운 것이라고 했다.

오늘 우리앞엔 科學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도록 되고있다. 달 탐험의 성공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최근 신문보도에 “발사한 木星탐색선順航”이라든지 “인공심장개발”이라든지 科學엔 적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科學만능이라는 말을 듣는지 모른다. 모든것은 실험관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科學만능 그 方法과 원리에 있어서 James Jeans 경이 말한 전형적인 기계론 이라는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식견있는 科學자라면 이런 기계론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는 갈릴레오, 케플러, 뉴우턴이 들으면 깜짝놀랄만한 새로운 科學의 원리들이 발표되고 있다. 즉 “비연속성의 원리”, “불확실성의 원리” 또는 “개연성의 원리”와 같은 것들이다.

현대科學의 대표자중의 하나인 max plank 는 말하기를 “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文句를 모든 科學자의 실험실 위에 새겨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주의 명확성과 신비성 앞에서 겸손과 의경(畏敬)의 정신의 발생이 많은 科學자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자의 반렬에서 나와서 신앙하는자의 반렬에 들어가게한 것이다.

科學자 아인슈타인박사는 말하기를 “종교없는 科學은 절음발이요 科學없는 종교는 눈먼 소경이라”고 했다.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科學과 예술은 全體世界에 속한것으로 그앞에는 국민성의 장벽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黑人科學자 조오지 워싱턴카버는 “나는 나의 실험실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내가 만일에 나 혼자 서면 나자

신을 상실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일을 할수 있다. 나는 神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다만 이 실험실에서 神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기계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그와더 붙어 더 긴밀한 접촉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있다. 나의 기도에다 나의 노동을 섞을때 어떤때는 神께서 그결과를 축복해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고 자기의 체험을 고백했다.

오늘 진실한 科學자들이 자연의 전리 앞에서 어린애 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이 까닭이다.

科學은 그 限界성을 겸손하게 알아야 한다. 科學만능을 부르짖지만 科學만능만은 아니다. 電氣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여 스 위치만 넣으면 큰 都市를 일 순간에 밝힐수 있으나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平和의 길은 조금도 밝혀주지 못한다.

現代의학이 환자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나 환자의 고된된 마음은 치료하지 못한다. 고층건물에 장치된 엘리베이터는 한번 단추만 누르면 수십 수백층을 단숨에 오르내리나 우리 罪人을 神께로 더 가까이 올려다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현대 科學은 人間의 육체에 관련된 피상적 의형적 생활에는 큰 봉사를 하고 있으나 人間의 가장 중대한 根本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공헌을 한 것이 별로 없다.

많이 들리는 이야기로 現代는 3 M 시대라고 한다. ① mass (대중) ② machine(기계) ③money(돈)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구세주라고 까지 불리웠던 故人이 된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다른 차원의 3 M 운동을 가르쳤다.

즉 ① moral(도덕) ② mental(지능) ③material(물질) 참으로 현명한 일이다.

경제 이상의 것은 도덕으로 도덕 이상의 것은 종교적 信仰이다. 오늘도 科學적인 方法에 의한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나라가 아울러서 도의적 信仰의인 祖國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3 M 운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科學만능의 시대에서 科學이상의 信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 —